

보장!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지입제 폐지 · 생존권 보장!



화물연대본부

·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60-6 서강빌딩 4층 ·전화: 02-2635-0789 ·이메일: hwamul1027@gmail.com
·날짜: 2022년 11월 14일(월) ·문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010-3139-5312), 이응주 교섭국장(010-2989-3864)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 · 품목확대!
2022년 11월 24일 0시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11월 14일(월) 오전 11시 장소 :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

1. 공정,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14일(월)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60-6 서강빌딩 2층)에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 · 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되었습니다.
5. 화주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정부여당 또한 화주자본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서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화물연대는 12월 31일자로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패악질과 여야의 정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7.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의 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2022년 11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60-6 서강빌딩 2층)

○ **기자회견 프로그램**

(: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내용	발언자
발언1	정부의 합의 파기 규탄 및 국회 논의 촉구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발언2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시민사회 발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3	화물연대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투쟁 발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4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투쟁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발언5	지역별 주요 산업, 업종 파업 결의 발언	화물연대본부 16개 지역본부장
총파업 선포	총파업 돌입 일정 및 투쟁지침 발표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첨부1. 총파업 요구안

■ **첨부2. 2022년 6월 14일 화물연대 · 국토부 합의**

■ **첨부3. 총파업 선언 및 투쟁지침**

■ **첨부4. 발언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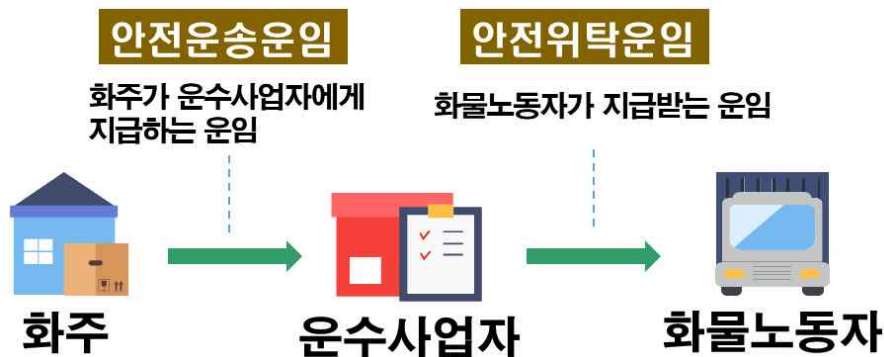
■ **첨부5.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z_-lrfOFIAActDHjU6eHqTA20fTeTG3?usp=sharing

첨부1. 총파업 요구안

1. 원칙과 요구안

안전운임 제도개악 저지

- 법안 발의 등 본격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으나, 지난 9월 29일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제2차관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주 측 청원을 적극 접수.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자체는 지속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악될 가능성 증대
- 본법 개정을 통해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삭제, 대통령령 변경을 통한 강제조항(과태료) 삭제 및 변경,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변경(노동조합 TO 삭제 및 변경) 등 행정적 무력화 예상 가능



- 특히 본법 개정으로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되면,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의 지불 책임이 사라짐. 운수사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도 지켜지기 어려워짐. 그렇지 않아도 낮은 제도 준수율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
-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여 화주 책임을 삭제하려는 국토부 및 국민의힘의 기조에 단호히 반대할 필요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되며 발생하는 한계는 비단 짧은 시행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음. '어차피 곧 사라질 제도'라는 인식은 낮은 제도 준수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애초 목표했던 제도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됨
- 안전운임 미만의 운임을 지급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제도위반 사례가 빈번. 화주 등이 제도의 3년 시범 운영을 악용해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 버티는 전략을 취하는 것

- 제도는 충분한 인력 배치와 자원 배분을 통해서야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행기간으로 인해 적절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음. 시행기간동안 안전운임 신고센터 인력은 5명에 불과했고, 접수된 신고를 조사하는 조사연구 인력은 1명뿐이었음. 2년간 5000건이 넘는 위반 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된 것은 91건(4%)에 그침
- 안전운임제의 제도 준수율 제고와 긍정적 효과 강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할 필요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제한. 이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1%에 불과
- 컨테이너 및 시멘트부터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것은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이라는 이유였음. 그러나 화물노동자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남. 이런 노동 조건이 도로위험을 야기하는 조건이 된다는 현실이 안전운임제가 제기된 맥락. 따라서 계량화의 어려움이 곧 품목확대 불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3년의 시행기간은 짧지만 유의미한 제도 설계 및 발전 과정을 밟아왔음. 운임 산정에 원가비용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의 다양한 관행을 부대조항으로써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안전운임위원회의 조사와 협의를 통해 진전되어 왔음. 이를 본보기로 차종·품목 확대를 추진해갈 수 있음. 6월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5개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확대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 시멘트뿐 아니라 시멘트 원료, 특수자동차뿐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필요

2. 법안 진행 상황

상술한 원칙과 요구안을 바탕으로 현재 5개의 안전운임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안전운임제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확보하는 가운데 적용대상 확대로써 제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

진행상태	대표 발의자	일몰제 폐지	사각지대 해소	품목확대	안전운임 신고센터 보강
2021-01-04 소관위접수		0	-		
2022-04-12 소관위접수	박영순	0	안전운임 적용범위 대통령령으로 확대		
2022-06-30 소관위접수	조오섭	-	▶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 ▶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	-	
2022-06-30 소관위접수	최인호	0	▶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 시멘트·시멘트의 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 특수자동차뿐 아니라 화물 자동차	▶ 철강재 ▶ 자동차 ▶ 위험물질 ▶ 곡물·사료 ▶ 택배 지·간선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
2022-07-01 소관위접수	심상정	0	▶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 특수자동차뿐 아니라 화물 자동차	▶ 철강재 ▶ 자동차 ▶ 위험물질 ▶ 곡물·사료 ▶ 택배 지·간선 ▶ 물류센터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첨부2. 2022년 6월 총파업 화물연대·국토부 합의

- 화물연대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이광재 서경지역본부장,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 참석
- 국토교통부는 윤진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조태영 국토교통부 안전운임팀장 참석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벌어진 물류산업 현장 갈등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국토교통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2.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3.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
4.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첨부3. 총파업 선언 및 투쟁지침

도착지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던 동료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동료를 볼 때면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과 함께 먹고살기 위해 살인적 노동 강도를 견디며 졸음을 쫓기 위해 내뺨을 때려가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노동자만이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도로 위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두 품목에 한정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이 달린 ‘안전운임제’는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다던 여당은 법안 처리에 나설 생각은 안 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생계를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의 국민과 화물노동자가 화물차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안전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며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해야 도로가 안전하고, 도로 위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됩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져 화물노동자들이 과로 과속 과적에 내몰리게 되면 국민의 안전도 같이 흔들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와 확대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입니다.

화물연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생사를 걸었습니다. 두 달 뒤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화물노동자들은 또다시 목숨을 담보로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화물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으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화물노동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목숨을 걸고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까?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피를 토하는 각오로 전 조합원 비상 총회를 소집했고, 전 조합원의 강력한 총파업 투쟁 결의를 한 데 모았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며,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의 피와 땀을 연료 삼아 움직였던 대한민국의 물류는 한 날 한 시에 모두 멈출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투쟁지침 7호를 선포합니다.

총파업 투쟁지침 7호

. 화물연대 전체조합원은 11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나. 화물연대 전체조합원은 중앙 투쟁본부의 복귀 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대오를 유지한다.

하나. 화물연대 전체조합원은 11월 24일 각 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다.

하나. 화물연대 전체조합원은 개별적인 행동을 일체 하지 않으며 중앙 투쟁본부와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한다.

하나.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2022 11월 14일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본부장 이 봉 주

첨부4. 발언정리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안전운임제는 흐지부지 됐다. 국회는 정쟁에 휩쓸려 지지부진 하다. 화물노동자의 희생으로 화주와 운수자본은 성장해 왔고 정치세력은 그들과 한편이 되어 안전운임제를 불모로 협박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더 이상 물러 날 곳도 없다.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를 통과 시켜야 한다.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누리는 그날까지 화물연대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박석운 공동대표

6월 총파업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내용에 모두가 동의했다. 모두가 합의대로 이행될 줄로 알고 있었다. 진짜 책임자,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화주들이 안전운임제에 적용받을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교통사고도 줄고, 도로 파손도 줄었다. 공동 편익에 안전운임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는 교통 공공안전에 결정적 지렛대가 되는 공익적 제도다.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화주들을 안전운임제에서 제외하면 을과 병간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하이트진로 투쟁에서 보았듯 을과 병간에 싸우고 소통해봐야 실질적 해결은 힘들다. 국토부의 6월 합의 파기는 국민적 지탄이 될 것이다. 많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이뤄진 합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6월 총파업의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화주자본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화물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물류대란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도로안전은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 안전을 지키는 화물연대 파업 지지하고 함께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안민국 안전을 지키고 공공성 높이기 위해 10만 5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25만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함께한다. 25만 조합원이 전국에서 시민들이 화물연대파업에 지지하고 연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민주노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민중의 편에 안선다면 단호히 심판하겠노라고 지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선언했다. 다시는 정부가 외면하고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싸워나가겠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이 옹호하고 함께해나가겠다.

16개 화물연대 지역본부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화물연대본부 16개 지역본부장들이 함께 안전운임제 개악저지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지역별 전략 거점 및 품목과 이에 따른 투쟁 전

밝혔다. 강원은 시멘트를, 경남은 조선 기자재, 광주는 일반화물, 특히 농산물 부문을 멈추며, 대구경북은 구미산단,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부산에서는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봉쇄하여 품목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평택항과 의왕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을 봉쇄하며, 위수탁은 부산항만과 신항의 차를 세울 것을 선포했고, 포항은 철강을 봉쇄할 뜻을 밝혔습니다. 충북의 BCT와 시멘트, 충남은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자동차, 위험물을 세우며, 제주는 농산물, 전북은 군산항, 전남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개 화학단지를 봉쇄할 예정이다.

첨부5.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z_-lrfOFIAACtDHjU6eHqTA20fTeTG3?usp=sharing)

